# 결정적 한방으로 존재감 증명한 이정협

〈울산〉

**얼굴부상 후 몸싸움 기피했던 이정협**
**윤 감독 "독해져라" 주문에 골로 응답**

울산현대 공격수 이정협(25)은 21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벌어진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1라운드 성남FC와의 홈경기 베스트11에 포함되지 못했다. 18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경기부터 2경기 연속 선발출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같은 포지션에 활약하는 외국인선수 멘디(28)가 성남전에 앞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었던 데다, 이정협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정협이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골맛을 본 것은 7월 20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가 마지막이었다. 이날 성남을 상대하기 전까지 24경기에 출전해 3골·1도움에 그쳤다.


윤정환 감독


이정협

울산 윤정환(43) 감독은 성남전에 앞서 "멘디가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경기 결과도 좋다. 이 때문에 같은 포지션의 (이)정협이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꾸준하게 훈련하고 있는데, 그라운드에 좀 더 독해질 필요가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좀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감독이 "독해져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이정협이 상대 수비수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윤 감독은 "지난해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얼굴을 다쳤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수비수와 강하게 한두 번 부딪히면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훈련 때도 강조하고 있는데,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정협이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정협은 이날도 0-1로 뒤진 후반 24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피 말리는 3위 싸움을 치르고 있는 만큼 그에게 부여된 역할은 분명했다. 부지런히 성남의 빈 틈을 노리던 이정협은 경기 종료 직전 천금같은 2-1 역전결승골을 터트리며 윤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장장 2개월 만에 값진 골을 터트리며 팀 승리에 앞장선 이정협의 재도약이 기대된다.

울산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아드리아노의 돌파** FC서울 아드리아노(오른쪽)가 2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수원FC와의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원정경기 도중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비리 심판 징계 뒷짐…프로축구연맹에게 책임을 묻다



취재파일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요즘 한국프로축구의 상황은 낯이 뜨거울 지경이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조직부터 흔들리는 모양새다. 끊이질 않는 심판비리와 판정논란 탓이다.

심판문제와 관련한 화살은 특정팀으로 향하고 있다. 소속 스카우트가 '심판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선두 전북현대다. 이미 3차례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돈을 주고받은 해당 스카우트와 심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28일 열린다. 항소 등의 절차가 없다면 공은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으로 넘어간다. 프로축구연맹은 '법적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뤄온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전북 구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이번 스캔들이 전북만의 문제인가다. 물론 잘못을 범했으면 규정에 따라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북 구단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다만 33년 역사의 K리그를 이끌어온 프로축구연맹 또한 진정으로 심판문제에서 자유로운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 심판들은 독립적 기구에 속해 있지 않다. K리그 심판들은 프로축구연맹의 관리를 받는다. 대부분의 국제축구연맹(FIFA) 회원국 축구협회는 아마추어 및 프로 심판을 총괄한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은 특수한 구조다. 프로와 아마 심판위원장도 분리돼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장을 누비는 심판들은 물론 심판선발·선임·배정 등의 업무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심판위원장들 또한 비위를 저지르곤 한다. 최근 2명의 전직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더 많은 경기에 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배 심판 및 K리그 구단 코치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나란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직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K리그 전반을 주관하는 프로축구연맹은 전북 구단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심판위원장들과 심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소속 구단만 징계한다면 프로축구연맹의 권위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 황선홍 "최강희 감독이 더 고민되겠죠"

**28일 弼 챔스리그 준결승 맞불**
**32R 미리 치른 서울 체력 우세**

전북현대와 FC서울은 숨죽인 채로 서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티켓을 놓고 일전(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 1차전·10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 2차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워낙 잘 알고 있는 데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경기를 치르며 행여나 전술이 노출될까봐 양 팀 사령탑은 말 한마디, 선수 기용 하나에도 조심스러워한다.

서울은 21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1라운드 원정경기를 펼쳤다. 서울 입장에선 전북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앞두고 실전에서 전술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당초 24일 예정돼있던 울산현대와의 32라운드 경기를 A매치 휴식기였던 3일 앞당겨 소화했기 때문이다.

서울 황선홍 감독은 애써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수원FC와의 경기에 앞서 그는 "(전북을) 속인다고 속여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선수들에게는 전북과의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리그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며 "수원FC전을 마치고 하루 쉰 뒤 곧바로 전북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래도 최강희 감독(전북)이 더 고민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북의 좋은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에게 맞출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웃었다.

황 감독의 말처럼 클래식과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전북의 기세는 하늘을 찌른다. 1·2군의 격차가 거의 없는 초호화 스쿼드를 바탕으로 클래식에선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정혁을 비롯해 군팀에서 제대한 미드필더 자원 3명까지 가세해 전력이 더욱 탄탄해졌다. 그러나 출중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만큼 베스트11을 구성하는 데 따르는 나름의 어려움도 안고 있다.

24일 성남FC와 클래식 32라운드를 치르는 전북 최 감독보다 한결 여유롭게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하는 서울 황 감독이 남은 시간 어떤 비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수원 | 서다영 기자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월권'에 용서없는 과르디올라

**투레 에이전트 불만 품고 공개비난**
**"사과 안하면 출전기회 없다" 일침**

맨체스터시티의 개막 5연승을 이끌며 순조롭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적응 중인 펩 과르디올라(45·사진) 감독이 본인의 선수기용 권한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일(한국시간) 2016~201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1인 엔트리를 발표하면서 미드필더 야야 투레(33)를 제외했다. 이에 투레의 에이전트 디미트리 셀루크는 "만약 맨체스터시티가 우승하지 못할 경우 과르디올라 감독은 '투레와 같은 훌륭한 선수에게 굴욕감을 준 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하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난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발끈했다. 스완지시티와의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32강전을 하루 앞둔 21일 기자회견에서 "투레를 챔피언스리그 출전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명단은 명단이다"며 "나는 이 팀의 감독이다. 에이전트가 자신의 선수가 경기에 뛰지 못했을 때 언론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셀루크가 팀과 동료들에게 사과해야만 투레는 팀의 일원으로서 모든 경기에 출전할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셀루크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사과 요구를 접한 그는 영국 BBC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왜 내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사과해야 하나. 그는 단지 몇 경기만을 이겨놓고 본인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그는 투레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 투레는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투레의 계약은 올 시즌을 끝으로 만료된다. 1월이면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0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 사령탑 시절에도 투레를 맨체스터시티로 이적시킨 바 있다. 6년 만에 재회한 투레와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다시 출전 여부를 놓고 얼굴을 붉히고 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 투자 못미친 성적…볼프스부르크의 갈림길

**분데스리가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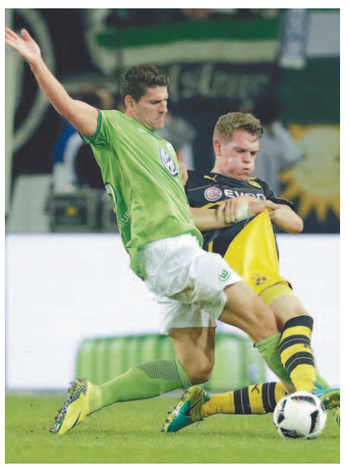
**도르트문트에 1-5 져…리그 9위**
**고메즈 영입 불구 만족못할 순위**

이익이란 저비용고효율일 때 그 폭이 상승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며, 효율적이지 않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지난 수년간 막대한 투자로 강호의 반열에 오른 볼프스부르크가 지난 시즌의 부진 때문에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

볼프스부르크 쿠라우스 알로포스(59) 단장은 최근 키커지와의 인터뷰에서 "클럽을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은 충분하다. 그러나 투자한 만큼 경기에서 경쟁력이 올라가야 한다"며 현재의 팀 상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2016~2017시즌 개막 이후 4경기에서 1승2무1패로 9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일(한국시간)에는 안방에서 도르트문트에 1-5의 참패를 당했다.

볼프스부르크는 2015~2016시즌 율리안 드락슬러(23)와 안드레 쉬얼레(26) 영입에만 7000만유로(약 870억원)를 쏟아 붓고, 시즌 도중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단테(33)까지 영입하는 등 대대적 투자를 거듭했다. 안타깝게도 그 같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8위로 시즌을 마감해 2016~201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출전권을 놓쳤다. 또 지난 시즌 후 쉬얼레는 경쟁팀 도르트문트, 단테는 니스(프랑스)로 이적해 주축선수들의 유출에 따른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볼프스부르크는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도 '큰 손'답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여름이적시장에만 5350만유로(약 660억원)를 투입했고,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서 독일대표팀으로 활약했던 마리오 고메즈(31)까지 잡았다.


볼프스부르크 마리오 고메즈(왼쪽)가 21일(한국시간)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벌어진 도르트문트와의 2016~2017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4라운드 홈경기 도중 마티아스 긴터와 볼을 다투고 있다. 볼프스부르크(독일) | AP뉴시스

볼프스부르크의 선수 욕심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4·토트넘)에게까지 닿았다. 이전부터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였던 알로포스 단장은 토트넘에 3000만유로(약 370억원)를 제시했다. 비록 이 영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볼프스부르크의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지난해 모기업인 폭스바겐그룹의 스캔들로 인해 볼프스부르크에도 불똥이 튀리란 예상이 많았으나, 아직까지는 대규모 투자 여력이 있음이 입증됐다.

다만 부진이 지속되고 투자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강팀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선 올 시즌이 중요하다. 갈림길에 서있는 볼프스부르크다.

퀼른(독일) | 윤영신 통신원

**전북 조성환 5경기 출장정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심판진에게 거칠게 항의한 전북현대 조성환에게 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성환은 18일 수원삼성과의 홈경기 도중 주심과 대기심에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늘부터 카타르전 입장권 판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카타르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차전의 입장권을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장권은 인터파크 홈페이지,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R석 15만원, 1등석 5만원, 2등석 3만원, 3등석 2만원이다. 레드존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다. 협회는 카타르전 입장 관중 전원에게 붉은색 티셔츠를 배포할 계획이다.

**제주 송진형, UAE 알 샤르자로 이적**
제주 유나이티드는 21일 미드필더 송진형(29)이 아랍에미리트(UAE) 알 샤르자로 이적한다고 발표했다. 송진형은 FC서울 소속이던 2008년 호주 뉴캐슬 제츠로 이적한 뒤 2012년 제주를 통해 K리그로 복귀했고, 통산 185경기에서 29골·22도움을 기록했다.